



12년

호덕리교분교 도굴 흔적 속 유물 발굴

# 전주매일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음 6월 10일) 제33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세미나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가길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갖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정치권과 결속

국회사 전북특별자치도 도약 세미나

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 공동 주최, 특자도 발전방향 모색  
김관영 도지사 "새로운 전북시대 개막 위해 힘 모아주시길"

전북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도민, 정부 관계자 등이 한 데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을 토론했고 특별자치도로 나아가길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의 강점을 부각시킨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안주)과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획기적으로 성장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계속 도전하고 성공의 경험을 쌓아 갈 수 있는 것은 도민들을 비롯해 정치권의 결집과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전북시대를 개막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경 지역정책실장이 '전통농업에서 생명산업으로 전환'을,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이 '광역소멸대응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생명경제 특화 지역활력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생명경제 선도를 위해 그린·레드바이오, 수소, 이차전지 등 특화지역의 생명산업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농생명, 모빌리티, 헬스산업 분야는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대전환을 도모하는 전략과 지역활력을 위한 과감한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제 발제에 이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별로 관련 전문가, 행안부, 농림부, 법무부, 산입부, 교육부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획기적으로 성장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계속 도전하고 성공의 경험을 쌓아 갈 수 있는 것은 도민들을 비롯해 정치권의 결집과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전북시대를 개막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도, 테러의심 국제우편물 시군 등과 신속 대응 내서

전북도는 최근 해외발 테러의심 우편물이 도내 각 시군에 신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심 국제우편물의 경우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 군부대, 지역보건소 등 관련기관들이 합동으로 출동해 의심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폭발물 및 화재방 탐지는 경찰특공대 및 35사단과 전북환경청에 지원 요청해 처리하고, 화학 및 방사능 탐지는 탐지 시군 소방서 구조대에서 수행하며, 생물탐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수행 후 밀봉포장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행정기전에 반입되는 외부 우편물에 대해 보관과 반입절차에 대해 실태 파악 후 문제점 발생시 보완·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정원 및 경찰청과 상황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도내 보관 중인 의심우편물은 82건, 오인신고는 82건으로 집계됐다. /김재훈 기자

### 社 告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재기자(원주)	"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 한글·영문 텍스트 입력 한국형 3D 객체 생성 가능

전주공예품전시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 선정  
한국디자인 주관 서강대 산학협력단·전통문화전당 공동 참여  
공예품 3D 모델링으로 이미지 데이터화... 60여억원 생산 유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02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한국형 텍스트 3D 객체 쌍 데이터) 사업에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문영역부터 일상생활까지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능화 서비스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핵심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2023년 하반기 동안 총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국형 텍스트 3D 객체 쌍 데이터' 과제는 한국 전통 공예품, 장신구를 포함해 한국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품을 촬영, 스캔하는 3D DX 및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텍스트 라벨링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특히 자연물 및 인공물을

포함한 학습용 3D 객체(object)와 객체 특징이 표현된 텍스트 및 메타데이터를 6,000개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글 또는 영문 텍스트(문장, 단어) 입력만으로 한국형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며, 방송 커머스, 제품디자인, 콘텐츠 특수효과, 기업 마케팅 AR/VR, 게임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과제는 (주)한국디자인이 주관하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문화재단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당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공예품을 3D 모델링으로 이미지 데이터화 하고, AI 기술을 통해 더 나은 공예 상품 디자인을 얻게 되는 등 60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